

# 남구 '통합돌봄' 주민들 든든한 버팀목 자리매김

### 지난 4-5월 20대부터 어르신까지 374명 지원 신청 분야는 가사 지원·식사·동행·재택 돌봄·세탁 등 다양

광주 남구가 실시한 '광주+ 으뜸호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 으뜸호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살핌과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구는 지난 4월부터 빈틈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가사 지원을 비롯해 식사, 동행, 건강, 안전, 주거

편의, 일시보호 등 7개 공통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인 퇴원 1인가구 재택 돌봄과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으뜸호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의 문을 두드린 인원은 374명에 이르렀다.

남구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청자의 상황을 살핀 뒤 328건을 지원하기 위

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20대 청년은 홀로 사는 중 교통사고로 한쪽 팔이 절단되고 다리에 철심까지 심은 상태여서 음식 조리 및 설거지 등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이 청년은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

다.

또 봉선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부부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할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족간병을 해 왔으나, 최근 허리협착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 지자체 방문 진료와 가사지원, 주거 편의 등의 서비스를 요청해 통합돌봄을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 한부모가정의 한 초등학생은 아버지가 퇴근하는 오후 11시까지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소아 우울증 및 결식 우려 해소를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돌봄은 어린 아이 및 어르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관내 주민들 중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 지원 요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관내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인문도서관 '1187라이브러리' 도서 기증

광주 동구는 지난 2일 무등산 장봉재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인문학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인문축제' 사전홍보를 위한 인문도서관 1187라이브러리 추천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광주동구 제공)

## '총장22', 문화플랫폼으로 새 출발

### 8일 비전 선포식...판소리·난타·플리마켓 등 다채

광주 동구는 4일 "복합문화공간 '총장22'가 개관 3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오후 4시 개그맨 전유성씨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판소리 김향순 명창과 영원한 가객 정용주 공연을 비롯해 패션쇼, 설치구, 창작무용, 난타 공연, 판굿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공예 플리마켓, 어반 스케치, 청년미술제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총장22의 새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사)대동문화재단이 원도심 총장로의 발전을 견인하는 허브 역할을 해온 총장22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민문화마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조상열 (사)대동문화재단 대표는 "지난날 화려했던 총장로 4·5가의 명성을 되찾는 거점시설로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며 창작하는 코워킹 코리빙 (Co-working, Co-living)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온 문화단체의 노하우를 집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총장22 등을 동구 문화 발전의 3대 축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태호기자

## 북구 '관학 상생발전 간담회' 개최

### 광주 북구는 4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단 50여명과 2회에 걸쳐 '관학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일에는 초등학교 교장단과, 8일에는 중·고·특수학교 교장단과 만남을 갖고 관학 협력사업, 학교 건의 사항, 교육 현장 애로사항 등 지역사회와 광주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간담회에서 북구는 학교 체육시설 개발, 나눔주차장 사업, 교복나눔 사업, 테마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해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재영기자

## '휴식·문화·교육'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 개관

### 댄스·밴드·북카페·자치활동실 등 갖춰...청소년 지원센터들도 입주

광주 서구는 4일 "전날 청소년을 위한 휴식·문화·교육 복합시설인 광주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가 개관했다" (사진)

광주 서구 상무오일로 23에 문을 연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천250㎡) 규모로 댄스실, 밴드실, 북카페, 자치활동실, 요리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등이 갖춰져 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및 체험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는다.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꿈과 상상, 행복을 한데 담아낸 센터는 청소년 성장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항상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센터가 서구를 대표하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재영기자



## 광산구, 1인 청년 지원 '나 잇수다' 운영

### 오늘부터 공간정리 건강 심리검사 등 160명 선착순 모집

광주 광산구는 4일 "1인 청년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나 잇수다'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광산구내 거주 1인 가구 청년(만19세~39세)으로, 우리 집 넓히기 공간정리(40명), 건강 체크(60명), 마음 두드림 심리검사(60명) 등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총 160명을 모집한다.

우리 집 넓히기 공간정리는 광산구내 원룸에 전 월세 임차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이 주거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정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건강 체크는 광산구 보건소를 통해 체성분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도 지원된다.

마음 두드림 심리검사는 총 8개 심리검사 중 청년이 원하는 2종을 선택한

다. 심리검사 후 1:1 해석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집은 5일부터 선착순으로 한다. 프로그램 인원이 충족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누리집 '새소식'이나 광산구 시민경제과 청년활력팀(02-900-3873)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홀로 사는 청년이 자신을 알아가고, 이해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근기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